

고유가·고물가 공습 본격화... 소비심리 '꽂꽂'

기대지수 7년 6개월만에 최대치인 8.2P 하락

경기 활성화·생활 형편 기대 심리 급속 악화

고유가·고물가에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에 비해 8.2포인트 내린 92.2로 집계돼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소비자기대지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00년 11월(8.3포인트) 이후 7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3월 99.7에서 4월 100.4로 상승한 뒤 다시 한달 만에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4월

93.8에서 5월 77.9로 무려 15.9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급락을 주도했다. 경기 기대지수의 하락 폭은 2002년 10월(18.1포인트)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는 4월 100.1에서 5월 95.0으로 떨어져 기준치를 밑돌았고,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한달 사이 107.3에서 103.8로 내려갔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전 소득계층과 전 연령대에서 전월에 비해 하락하면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5월 72.2로 전월의 80.0에 비해 하락했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88.0으로 떨어진 뒤 12월 85.1, 올해 1월 82.7, 2월 81.8, 3월 76.4 등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4월 들어 반짝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61.0으로 4월의 72.4에 비해 11.4포인트,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는 83.4로 전월의 87.3에 비해 4.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전 소득계층과 전 연령대에서 4월보다 하락했다. 연령대에서는 30대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자산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택 및 상가(100.2→101.3), 토지 및 임야(101.2→102.5), 주식 및 채권(85.7→89.5)은 상승했지만 금융·저축(96.7→96.0)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수입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계수입 평가지수는 94.8로 전월(96.2) 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첫 번째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75.8%)를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8.0%), '국내소비'(5.2%) 등도 변수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물가 감안해 금리·환율 운용해야”

강만수 장관, 안정적 경제정책 시사... 추경 편성 의지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금리와 환율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때문에 ‘안정’이 우선 고려할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당분간 성장보다 물가에 중심을 둔 안정 지향적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환율이나 금리는 고유가 대책과 별도로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마쳤다”며 “법 개정 없이도 추경 추진이 가능하며 현행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말해 편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현재 4조5천억원 상당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강 장관은 “이번 고유가 대책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연장할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모든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강 장관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반기 실적을 살펴본 후 7월에 경제전망 및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표준운임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중”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경제팀 해산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므로 할 말이 없다”며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매실주 담가 보세요” 광주시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매실주를 담글 수 있는 소주와 설탕을 함께 판매한다. 판매가는 매실(100g) 360원, 설탕(3kg) 3천350원, 소주(1.8ℓ) 4천400원이다. (광주시세계 제공)

가계 빚 640조

올 1분기 사상 최고... 전세자금 대출 급증 탓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빚이 640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08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1분기중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용)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40조4천724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9조7천938억원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1천667만3천16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841만원 정도다.

올해 1분기 가계 빚 증가 규모를 보면 전분기의 20조348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조5천534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천840억원이며, 판매신용 증가액은 2천989억원이다. 통상 1분기 때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지만 올해의 경우 1·4분기 증가 폭 기준으로는 2002년 1분기(26조4천억원)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국민 1인 세금 400만원 넘어서

작년 422만원... 전년보다 51만원 늘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4천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증가했고 지방세는 43조4천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204조8천

591억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추계 인구 4천845만6천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422만8천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 371만3천원에 비해 51만5천원(13.9%) 늘어난 규모다. 또 총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7%에 달해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35세 노후자금 연금 외에 3억6천만원 필요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스크’ 산출... 각종 연금소득은 제외

27세는 5억6천만원·45세는 2억2천만원 추가자금 있어야

현재 35세인 사람이 은퇴 후 평균 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각종 연금으로 보장받는 부분을 빼고도 3억6천50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튜진식 선임연구원은 10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 소득 대책’ 주제의 국제 콘퍼

런스를 앞두고 9일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튜 연구원에 따르면 60세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할 경우 평균적으로 소요될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을 뺀 ‘고령화 리스크’를 산출한 결과 35세는 3억6천500만원이 었다.

이는 평균 생활비·의료비 추정액에서 현재 1인당 평균적으로 받게 될 연금 소득을 뺀 수치다.

같은 방식으로 뽑은 27세의 고령화 리스크는 5억6천528만원, 45세는 2억2천41만원이었다.

또 튜 연구원이 노동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연금을 통한 노후의 적정 소득 대체율은 65.0~75.6%였지만 실질 소득 대체율은 45.1%에 불과했다. 이 45.1% 가운데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몫은 22.8%였고 퇴직연금은 12.6%, 개인연금은 9.7%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합뉴스

고유가 증시 ‘휘청’

코스피 23P 급락... 1800선 간신히 지켜

투자자 “당분간 관망” “저가 매수” 팽팽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코스피지수가 9일 장중 1,780선까지 떨어졌으나 저가매수로 1,800선을 지켜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수준이 장기상승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1,700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23.35포인트(1.27%) 내린 1,808.9에 마감했다.

◇ **고유가 쇼크에 증시도 ‘휘청’** =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 했던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 했던 유가가 다시 반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증시에 충격파를 던졌다.

현대증권 배송영 연구원은 “유가 급등과 신용위기에 두 가지 불안요인이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가 급등이라는 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글로벌 증시는 당분간 어려운 행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당분간 관망” vs “저가 매수 유효”** =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72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당분간 국내 증시도 조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망세를 취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1,8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저가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다.

우리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지지선을 1,770~1,780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증권은 1,750, 동양증권은 1,720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상급한 매수보다 1,700선 중반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권한다. 매수에 앞서 유가 변동성 하락, 미국 장기금리 상승, 인화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 현상 개선 등 3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가 100달러 내외로 하락 가능성도”** = 유가가 조만간 100달러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의 장기상승 추세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양증권증권 이철희 연구원은 “선진국은 2년째 유류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 신흥국도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감소가 예상된다. 중국도 올림픽 이후 가격인상에 내실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한국 철강생산 능력

2010년에 7천만톤

국내 철강산업의 철강생산능력이 2010년에 7천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가 9일 제9회 철의 날을 맞아 회원사 및 주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철강 생산능력 계획’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철강생산능력은 2008년 5천982만 8천톤, 2009년 6천232만8천톤, 2010년에는 7천53만1천1천으로 집계돼 우리나라도 62년 철강생산능력을 조사한 이래 48년만인 2010년에 사상 처음으로 7천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전로 부문은 포스코의 신제강건설과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으로 2010년 4천349만8천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기로 부문도 2009년 동부제철의 전기로 가동 등으로 3천103만3천톤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철강생산 능력은 81년 1천만톤, 2002년 5천만톤을 돌파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금년에 철강용 설비투자 비중이 비정비기술(IT)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중 최고인 14.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로-4’ 기준 이상 생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방안 추진

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경부 김창규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 아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0	062-601-7213
서한기업	광주지사 인사/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1	02-2217-0051
이모레퍼시픽	이모레퍼시픽 DM(디자인)제작 및 발송업무	초대졸/경력1년	2400~2600	06/13	062-231-1816
프리머스에이치알	[주5일]신한 고객만족센터(30명-센터확장)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3	062-383-1756
포토일주	촬영보조 및 상담/포토샵작업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2400	06/14	062-222-0945
나눔미디어	정규직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4	062-372-2480
케이이원산업	기획사무원 회계경리(건설)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14	062-446-5000
남해철강	생산·품질관리팀/경리 회계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943-8676
한국알프스	제품설계/생산기술/설계지원/금형/구매/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950-2116
케이이티블루	KTF개통실 신입,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234-1439
교보생명 FA Group	[광주/전남]2008년 인터넷 신입 FA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524-4183
송지전략	태양광기술영업 및 현장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6/16	062-605-9797
☎ 디자인인도	설계실 직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6/17	062-222-2542
백산한의원	간호조무사/피부경력/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7	062-972-754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